

89년 日本 석유산업의 당면문제와 전망

1. 석유업계의 환경 변화

(1) 국제 석유정세

'88년에는 국제 석유정세를 크게 좌우할 사건이 일어났다. 7년간 계속된 이란·이라크의 정전이 바로 그것이다. 정전이 국제 石油수급·원유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이란, 이라크 모두 전후 복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原油를 증산할 것이며, 그 결과 공급이 과다해져 原油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다. 또다른 견해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原油생산능력 과다가 계속되어 당분간은 OPEC가 생산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란·이라크 전쟁이 정전되면 OPEC내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져 오히려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동향을 보면, 휴전직후 原油가격은 강세를 나타내어 후자의 설이 맞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中東 OPEC회원국의 증산이 계속되어, 두바이 원유의 스파트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86년도를 방불케하는 현상이 일어나 전자의 설을 뒷받침 하는 상황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생산조정합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石油수요와 원유생산능력이 균형을 이루게 될 '95년까지는 어느쪽 설이 결정적으로 옳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란·이라크 뿐만 아니라 OPEC회원국들은 증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항상 갖고 있으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原油가격을 생산조정에 의해 유지하지 않

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망을 해보면, 원유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며, 상당한 폭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된다.

석유업계로서는 원유가격, 엔화 환율 모두 안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외부조건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그것을 현명하게 받아들여 일본의 석유시장을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에너지·石油수요의 증가

'88년에 석유업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환경변화는 石油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이다. 원유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되어 石油가 타에너지와의 경쟁력을 회복한 '86년도부터 日本의 石油수요(연료유 계)는 증가기조로 전환되어, '86년도는 전년도 대비 1.6%, '87년도는 4.2%, 그리고 '88년도 상반기는 전년도 동기대비 6.7%, 하반기는 3.8%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日本의 에너지 전체에 있어서도 증가기조에 있어, '87년도의 에너지 공급은 전년도 대비 5.8%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석유위기 이후 진전된 소재 산업이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내수확대 요청에 따른 6조 엔 규모의(긴급 경제대책)으로 급격히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향후의 에너지 또는 石油수요에 대한 견해로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석유위기 이후 계속된 省에너지는 쇠퇴하고, 앞으로는 에너지 신장율의 대 GNP 탄성치는 1이 기조가 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사실, '87 에너지 신장율의 GNP 탄성치는 1.2 가깝게 되었다. 이러

한 견해에 따르면 석유도 그 신장율의 폭은 에너지 전체의 신장율보다 작을 지 모르지만, 장차 늘어날 것으로 된다.

또다른 견해는, 최근의 에너지 또는 石油의 신장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무역마찰 문제에서 파생된 내수확대책에 의해서 소재산업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회복되었지만, 산업구조는 국제분업을 향해 장기적으로는 착실히 진행중에 있으며, 日本경제는 썩에너지 형태로 발전하는, 요컨대, 에너지 또는 石油수요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의 日本 경제는 여전히 순조로와 보이지만, 美國 대통령 선거후에는 미국은 디플레 정책을 취하고, 日本 경제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름든 에너지나 石油수요의 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불투명한 요소가 많이 있다. 게다가, 에너지에 관한 장기적인 문제로서는 원자력 발전 및 탄산가스에 의한 지구온실효과등의 문제가 있다. 이같은 점들은 에너지나 石油의 장기적인 수요전망을 한층 더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89년의 石油수요는 '88년에 이어 계속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석유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수요동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확고한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물론, 일시적인 수요 변동 등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전략수행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89년에는 장래 동향을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의하여 日本의 석유산업은 장기전략을 재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日本석유산업의 당면과제

(1) '88년의 회고

'88년도 상반기 석유업계 전체의 실적은 '87년도 상반기와 같은 수준이었다. 작년에 이어 계속 합리화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수요가 전년동기 대비 6.7%라는 대폭적인 증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던 최대의 이유는 중간유분, 특히 경유의 시황악화 때문이다.

경유의 시황 악화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였다. 첫째는 '88년 8월 1일부터 KI당 1,300엔이 증세된 石油稅의 전가문제이다. 이것은 석유세가 종전의 증가세에서 증량세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KI당 1,300엔의 증세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최종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장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소비세 전가의 시급성이 된다는 인식때문에 통산성, 석유업계는 진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휘발유로의 전가는 비교적 잘되었지만, 輕油에 대해서는 트럭 등 대규모/수요처용을 중심으로 그 전가가 난항을 겪고 있어, 이 상태로는 증세분을 석유업계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장차 소비세가 도입될 경우에는, 당연히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지만, 금번 輕油에 대한 石油稅 전가의 고전이 나쁜 前例가 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다.

그리고 둘째는 輕油 거래세의 탈세문제이다. 輕油탈세가 횡행하여, 시장에서 탈세품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면, 과세품은 탈세품과 가격 면에서 경쟁할 수 없으며, 자연히 시황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인식때문에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경유의 탈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약업자(특별징수의 의무자)가 납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과 특약업자의 담합이 이루어지기 쉽고, 그것이 징세면에서의 헛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악질적인 元賈(경유 거래세상의 원매업자는 현재 모두 73社이다)와 악질적인 특약업자가 한통속이 되어 납세의 의무자인 특약업자를 계획적으로 도산시켜, 탈세를 도모하는 것이다. 주간 아사히 등에 보도된 케이스는 이에 해당한다. 세액은 등유 등의 혼합이나 비경유의 가짜판매(예를 들면 A중유)이다. 이들을 자동차 용으로 사용한 경우 경유세의 납세는 혼합의 경우는 판매점, 비경유의 가짜 판매의 경우는 자동차 보유자가 신고를 하게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량의 신고는 있지만, 조사가 어렵거나, 만일 포착 하더라도, 다음달까지 해당분만 신고납부하면 문제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 대부분은 무신고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탈세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납세지에 대하여 소비지 과세방식으로서의 이행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화나 지방세 그대로의 출고세화하는 구상도 있었으나, 주로 金石連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악질적인 원매업자, 특약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원매업자, 특별징수 의무자의 자격요건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

혼합문제에 대해서는 착색제, 식별제의 첨가가 검토되고 있으며, 주변 유종인 크마린의 첨가등이 유력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혼합이나 비경유의 가짜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식별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①혼합·비경유 가짜판매의 금지, ②감시 체제의 정비강화, ③벌칙의 정비강화 등의 강력한 법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크마린 등의 첨가는 석유업계로서는 상당한 코스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코스트는 만일 국가의 부담으로 되더라도, 탈세방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 세금의 헛사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금지조치등의 체제정비, 강화를 대전제로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드러진 제3의 문제점은 중간유분의 수급완화, 특히 중간 유분의 대폭적인 제품 수입 증가이다. '87년도의 등경유의 제품 수입실적은 등유 688만 KI/年 경유 501만 KI/年으로 공급계획에서 책정되었던 등유 318만 KI와 경유 125만 KI를 대폭 상회하였다. '88년도 상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상반기 수입실적은 등유 294만 KI, 경유 305 KI로 이들 또한 공급계획상의 등유 144만 KI, 경유 188만 KI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대폭적인 중간유분의 제품수입 증가가 중간유분의 수요완화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경유 시황문제를 부각시켰다.

경유에 관한 문제점으로서 우선 ①石油稅 전가문제, ②경유 거래세 탈세문제를 설명하였으나, 이들 두가지 문제점은 모두 중간유분의 수급완화에서 파생된 것이다. 수급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石油稅 증세분의 전가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경유세 탈세 문제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간유분의 수급문제는 석유업계에 있어서 '88년의 가장 큰 문제였으나, 실은 이것은 단순히 '88년에만 관련된 단기 문제는 아니다. 가일층의 규제완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석유업계에 대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그 전가에 관련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 '89년의 과제와 전망

석유업계로서 '89년의 최대 환경변화는 규제완화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휘발유의 PQ가 4월 이후 철폐되는 것이다. 휘발유 PQ는 종전 석유업계에 있어서 최대의(또는 유일한) 수익제품인 휘발유의 국내 수급을 균형화 시키기 위해 채택해 온 조치인데, 이것이 철폐된 후 휘발유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이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최대의 초점이다.

그런데 앞에서 중간유분, 특히 輕油 수급의 완화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이 수급완화는 제품수입 증가가 원인이며 중간유분의 제품수입 증가는 '86년도 이후, 특정 석유제품수입에 관한 규제 완화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제적인 석유수급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완화 상황은 '89년은 물론, 4~5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 수입 등 공급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경우에는 그것이 공급증가로 연결되어 수급완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휘발유와 중간 유분과의 차이는 있으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회사가 중간유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대응을 계속한다면, PQ 폐지 후의 휘발유 수급은 완화되고, 가격도 약세가 된다는 것이 자연스런 흐름일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휘발유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석유업계는 휘발유 이외의 유종, 특히 중간 유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체제로 구조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휘발유만 유독 가격이 높다고 하는 현재의 일본 국내 가격체제를 국제 가격체제로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PQ폐지가 공표된 시점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88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다. 즉 석유업계로서는 중간 유분의 시황을 시정하고, '89년 4월 이후의 휘발유 PQ폐지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실정은 石油稅 증세분의 전가도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PQ폐지를 대처할 체제정비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89년 4월의 휘발유 PQ폐지는 중단없이 실행될 것이다. 석유업계는 중간유분 시황 시정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경쟁이 하나 더 추가되는 소위 신학기에 돌입하게 된다.

클래스 전원이 탈락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클래스(외국)와의 경쟁에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분명히 '89년은 석유업계로서는 시련의 해가 될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대책은 휘발유와 중간 유분 모두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급을 하는 것이다. '88년에 각사가 중간 유분에 대하여 취한 것과 같은 대응을 할 경우에는 중간유분 뿐만 아니라 휘발유에 대해서도 시황이 붕괴되어, 석유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3. 맺는말

이와같이 원유가격이나 石油수요의 동향 등 日本의 석유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불투명한 점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석유산업은 유연하게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장기전략을 확실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확실한 변화도 있다. 그것은 '89년도부터 실시 될 휘발유 PQ의 폐지이다. 이것은 日本의 석유산업으로서 근년 최대의 환경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8년의 중간유분과 같이 각 석유기업이 대응을 잘못하면 위기적인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89년이 끝나면 21세기까지의 마지막 10년이 되는 1990년대가 된다. 21세기에도 日本의 석유산업이 신뢰 받는 에너지 공급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 중요한 10년간이 될 것이다. 볼링에서는 각 프레임이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최후의 10 프레임이 점수로 올리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 중요한 점은 9 프레임에 여하히 최후의 10 프레임에 연결하느냐이며, 이것을 Foundation 이라고 부르고 있다. '89년에 90년대로 연결할 수 있는 Foundation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석유업계의 대응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

□공산권 동향□

소련, 88년 산유량 저조

소련의 88년 原油 및 콘덴세이트 생산은 당초 예상 을 下廻하여 87년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88년 3/4분기까지 소련의 평균생산량은 87년보다 0.14% 밀도는 수준인데 이같은 추세가 4/4분기에도 이어질 경우, 88년 산유량은 124.85億배럴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Tyumen지역은 목표생산에 미달하였고, 서부 시베리아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소련의 石油생산 저조를 소련 과학아카데미의 시베리아 분과부위원장 Trofimuk는 소련 石油省이 지나치게 기존의 석유부존층에 탐사를 집중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특히 서부 시베리아의 소규모 油田開發成功을 선호하여 東部 시베리아의 油田개발을 연기

시킨 것도 산유량 침체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부시베리아 유전개발을 위해 금세기말까지 서부 시베리아에 투자할 3,000億루블중 1/3정도를 투자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련의 土質廳에 따르면 88년 3/4분기 石油발견은 總 13件(석유 9, 가스/콘덴세이트 3, 가스 1)으로 2/4분기 15건보다 저조 하였다.

최근 발견된 유전은 Timan-Pechora분지에서 400b/d, 北部 Caspia분지에서 900萬F³/d의 가스와 500b/d의 콘덴세이트 그리고 동부시베리아의 Kransoyarsk地域에서 1,350b/d의 原油가 試驗生産된 바 있다. □